

나눔터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날: 1994년 2월 5일/ 계간발행/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전화: 02)576-7127~8



최영애 소장 여성동아대상 수상식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차 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연령별 성교육(이미경)	10
이렇게 생각한다/ 직장내 성희롱	3	내가 생각하는 성(이숙경)	11
여기는 상담실	4	미리보는 상담소	
이렇게 도왔습니다	5	나눔터 애깃글(공선옥)	12
지상상담		성문화 읽기/그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류선자)	13
더좋은 상담을 위하여	6	이렇게 일한다	14
어린이 성폭력예방 비디오를 보고	7	위기센터	15
비디오 구입 요령		나눔터 알림판	
특집:성폭력 특별법(최영애)	8		
인터뷰: 이종걸 변호사			



성폭력 특별법 통과

성폭력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여성계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년간의 노력 끝에 이룬 성과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성계는 기존의 형법보다는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 법관 행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문제는 올해 4월 1일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얼마만큼 여성계의 요구를 담아내는가이다.

최영애 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이 국내 최초로 성폭력상담소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은 물론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공로로 동아일보사에서 수상하는 제 11회 '여성동아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주목할 만한 사회 활동을 한 여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1984년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다.

수상식이 있었던 지난 1월 14일 동아일보사에는 여성단체 관계자, 동아일보 권오기 사장과 임직원, 상담소의 상담원·나눔이·지킴이 등 많은 이들이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식



▲ 제4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식

성폭력위기센터 개설식이 지난해 12월 13일 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 있었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위기센터는 위기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것은 물론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권영자 정무 제 2장관, 이우정 민주당 국회의원 등 각계의 여성인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는 위기센터가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로 가득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시사회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시사회가 지난 12월 19일 동숭동 인켈아트홀에서 있었다. 본 상담소가 1년 동

안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 낸 이 비디오는 유치원생과 국민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용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제4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지난해 10월 15일 시작되어 여성학과 상담학 과정을 모두 마친 제 4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이 12월 16일에 있었다. 이번에 수료한 22명의 4기생은 한달간의 실습 교육을 마치고 2월부터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성폭력 위기센터 숙박교육 실시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 준비를 위한 지킴이 교육과 상담소 겨울 숙박교육이 지난해 11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한 국여성개발원 후원으로 종로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다.

상담원과 나눔이, 지킴이까지 상담소의 모든 가족이 참여한 이번 숙박교육은 위기센터 개설을 위한 준비의 자리가 되었다.

상담소 잔치

상담소 집들이, 최영애 소장 여성동아대상 수상 축하, 1994년 새해 시작을 위한 잔치가 1월 22일 상담소에서 있었다. 강기원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잔치는 상담원, 맡기인, 나눔이, 지킴이 등 70명의 상담소 식구가 모인 흥겨운 자리였다.